



농협개혁위원회의 출범과 대응방향

(1) 농협개혁위원회의 발족

농협중앙회 내부에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공식 발족하였다. 이날의 발족식에서는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을 위원장,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하는 등 농민단체와 조합장, 학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을 개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최원병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로 최원병 회장은 개혁위원회의 발족을 위해 지난 1월과 2월 전국 조합장의 순회 간담회, 농협개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등 정식 발족을 위한 단계를 거쳐 왔다.

최원병 회장은 인사말로 “농협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 하나되는 농협’을 구현함으로써 농업인 실익 증대를 도모하고, 농협을 둘러싼 대내외의 농협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농협개혁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농협개혁위원회의 설치배경을 설명하였다.



3월 24일 농협 내부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최원병 회장 및 개혁위원들이 헌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농협개혁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농민단체와 농업계 언론사들은 농협의 자체 개혁 의지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내부 개혁에 대한 실효성과 위원회의 구성,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개혁과제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논의된 향후 일정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날의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한농연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농협개혁위원회의 주요과제

이 자리에서는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조합장개혁위원회와 내부공모를 통해 취합해 온 11개 과제 61개 세부 항목이다. 주요 과제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축산물 부가가치 창출, △중앙회 슬림화와 책임 경영체제 구축, △전문 인력육성과 성과주의 문화정착, △계열사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조합 규모화 및 전문화 추진, △농업인 실익증진 및 농업경쟁력 제고, △신용사업 역량강화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농협상 정립, △농촌사랑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 △윤리경영 정착으로 청렴한 농협문화 구현 등이다.

(3) 농협개혁위원회의 향후 추진 일정

농협중앙회는 발족식에서 발표한 내부 취합 개혁안을 기초로 4월 3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각 단체의 정책실무자를 한 자리에 모아 각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농연도 지난 정책부회장단 교육 이후 논의해 온 농협개혁안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최종 수정을 거쳐 4월말 최종 농협개혁과제를 제출기로 하였다(표-1 참조).

향후 농협중앙회에서는 각 단체의 요구안을 취합하여 5월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한 후 6월 중 과제를 확정짓고, 올 7월부터 개혁안에 대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추진일정을 갖고 있으며, 농협개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받는다라는 세부계획을 갖고 있다.

(표-1) 농협개혁위원회에 제출한 한농연 농협개혁(안)

- 4대 과제 20개 세부항목 -

4대 과제	20개 세부항목
<p>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견제와 균형의 달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조정 및 선출방법 개선 2. 이사회 의 구조·기능 개편 및 권한과 역할을 강화 3.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4. 인사추천위원회,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5. 감사위원회를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기구로 구성·운영
<p>농협중앙회의 조직·사업·인력운용 구조 개선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의 조직 개편 및 기능을 조정 7. 자회사 : 일선 조합 중심의 지배구조로 이행 8.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지원 강화 9. 품목별연합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방안 10. 농자재 계통구매사업 혁신 방안 11. 유통전문인력의 양성·운용체제 확립
<p>일선 조합의 지배구조·사업구조 개선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일선 조합 전무의 공모제를 통한 책임경영제를 정착 13. 조합 내 품목별 당연직 이사직과 농업인단체장 사외이사직 부여 14. 조합 임원·대의원 자격요건 및 소양교육을 강화 15. '1구역-1조합' 원칙을 폐지, 자유로운 조합 선택권을 부여 16. 중앙회 무이자 자금지원원칙 강화 17. 경제사업 전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강화
<p>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지역농업 활성화 조례' 제정, 계약재배 농가 지원책 시행 19.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도시농협 호라용방안 모색 20. 품목별 유통전문농협으로의 전환·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

※ 이 개혁안은 4월 11일 제출한 자료로 이달 말 최종 마감일까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개혁안이 확정되는 데로 업무연락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4) 농협개혁위원회의 우려점과 한농연의 대응방향

위와 같은 농협 내부의 개혁위원회 발족에 대해 농업계 인사들은 최원병 신임 회장의 의지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대내외 요구를 취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임직원들의 의지보다는 대내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농협중앙회에서 제시한 농협개혁안에는 핵심내용이 없다. 물론 개혁초안이 조합장개혁위원회와 내부공모 등을 통한 과제들이고, 향후 농민단체 등의 요구안을 취합하여 개혁안을 확정짓겠다고 하였지만, 논의과제의 대부분이 농협의 사업 중심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과 전문 유통 사업 구조로의 개편 등은 미흡하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농민단체장과 인사들을 제외하면, 친농협 인사들이 많고, 농협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자율적 개혁방안의 마련과 독립성의 확보가 미흡하여 현실적인 개혁과 연계되는 데에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문민정부 이후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성과로 나타나지 못한 만큼 마지막이라는 의지를 갖고 개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농협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요구를 가져온 한농연의 역할은 크다 할 수 있다.

한농연은 2월 25일 정책부회장 교육을 통해 한농연 농협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각 시도 정책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후 중앙연합회는 시군구연합회별 농협개혁위원회의 구성·활동을 적극 독려중이며, 4월 10일부터 시작된 이감사·대의원 교육을 통해 농협 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무 교육을 집중 실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연합회는 관내 조합별로 한농연 출신 이감사·대의원을 조직하여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될 것이다.

한농연 회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농협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상시적인 학습·실천조직으로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2004년 충북·경북지역 농협개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전국 규모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개혁 성과가 광범위하게 공유·확산되지 못했으며 1회성으로 그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연락 체계를 통하여 지역별 농협 개혁운동의 모범사례를 공유·확산시켜, 전국적 차원의 농협 개혁 성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중앙·시도연합회는 전국 차원의 통일된 지침과 교재를 전달하고, 지역의 모범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지역에 전파할 방침이다. 읍면동회·시군구연합회는 지역별 모범사례와 애로사항을 시도·중앙연합회로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농협의 개혁과 맞물려 농협중앙회 및 농협법 등의 법적·제도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명박 신정부 및 18대 국회 출범 등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중앙연합회는 농협법 및 각종 제도 개혁 과제를 각 지역별로 회람·공유하고,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최종적인 농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이번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계 내부의 움직임이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중앙연합회를 비롯한 한농연 지역연합회원 한명 한명의 움직임과 관심이 농협개혁의 첫단추라는 심정으로 계속된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